# 듣기교육의 이론과 실제
##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高　明均

## 1. 서언

본 연구는 듣기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것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시 듣기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수준별 듣기교육에 있어서 교수학습 방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주는 것은 말과 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 먼저 생겨났으나,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문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보다는 말에 의한 의사소통이 훨씬 쉽고 빠르게 전파된다. 즉, 화자에 의한 말은 청자에 의해 일련의 듣기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

최근의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교육은 인간의 4가지 언어기능에 착안한 교수학습 이론이다. 즉, 표현교육인 말하기와 쓰기, 이해교육인 듣기와 읽기이다. 물론 이 4가지 기능이 상호보완 작용을 하면서 학습의 성과를 이루겠지만 인간의 언어에 대한 발달 과정을 보면 역시 듣기가 우선이다. 즉, 들어서 이해하고, 말하며, 쓰게 되는 것이다.

듣기교육은 화자의 말을 들은 청자가 청각적 자극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의미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화자에 의해 전달된 내용을 분석, 종합, 비판, 감상하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적극적인 형태의 이해교육에 해당한다.[1] 듣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재생산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듣기는 앞서 말한 정보의 획득과 나아가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듣기는 말하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먼저 듣기를 통해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말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듣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며, 다른 언어기능인 말하기와 쓰기 등으로 전이된다.

듣기의 유형에는 들리기(hearing), 듣기(listening),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최재진(2004:42-43)은 들리기(hearing)란 귀에 들리는 소리로서 물리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소음과는 구별되고, 듣기(listening)는 들려 오는 소리를 의미와 관련짓는 것을 말하며, 이때는 배경지식과 경험이 작용하게 되고 화자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는 듣기를 포함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듣기를 일컫는 용어를 말하고 있다. 즉, 듣기를 통해 정보를 분석, 종합, 비판하여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다.

듣기 기능은 언어 기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한국어를 직접 접하기 곤란한 외국인에게

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듣기훈련이 요구되지만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원활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외국인에게 있어서 듣기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음가를 모른다.
2) 화자의 보통 속도의 말도 빠르게 느낀다.
3) 발음기관에 익숙하지 못하다.
4) 발음이나 억양이 달라도 다른 말로 인식한다.
5) 절대적으로 어휘력이 부족하다.
6) 문장이 길면 이해하지 못한다.
7) 문어체와 구어체의 구별이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듣기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해당하는 듣기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기본적인 듣기교육의 단계 및 인지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끝으로 듣기학습의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한 시청각 기자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 2. 듣기교육의 역사적 배경

듣기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이론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 청각구두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전신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의 3가지를 논할 수 있다. 각각의 교수법은 듣기교육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 교수법은 발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휘는 시범, 마임, 그림 등을 통해 제시한다. 즉, 듣기(listening)→말하기(speaking)→읽기(reading)→ 쓰기(writing)의 순서로 학습을 하되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문자의 도입 없이 정확한 발음을 강조하면서 듣고 말하는 훈련에 집중한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읽기와 쓰기를 병행한다. 강사는 항상 학습자에게 정확한 발음을 제공해야 하고, 다양한 교구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귀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학습 과정 중에는 강사나 학습자는 모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번역 또한 금해야 한다. 듣기 훈련에 적응한 학습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목표어(target language)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직접 교수법은 일차적으로 구어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초기 학습 단계에서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점을 갖고 있으나, 새로운 어휘를 익히고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강사가 모국어가 아닌 목표어로만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목표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위의 직접 교수법과 마찬가지로 구어를 재료로 듣기와 말하기를 강조하는 교수법이다. 학습자는 강사의 발음(음성적 특징)을 듣고, 자신의 발음과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문법적 구조를 익히게 된다. 듣기 교육을 강조한 이 교수법은 일반적으로 5단계의 절차[2]를 거치게 된다. 교수학습의 활동으로는 학습자가 모방, 반복, 연습을 통해 목표어를 익히게 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는 '밈멤 연습'(mim-mem practice)과 '문형연습'(pattern practice)[3] 이 있다.

전신반응 교수법은 Asher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명령이나 지시 등의 언어자극에 대해서 신체

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목표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이 교수법은 아동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듣기능력을 우선시하는 아동의 모국어 습득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명균 외2006:195참조)

<아동의 모국어 습득 단계>

1) 말하기 능력보다 듣기능력이 먼저 발달
2) 듣기능력은 부모의 명령문 형태의 말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면서 습득
3) 듣기 이해능력이 생기면 말하기는 자연적으로 발전

위에 열거한 3 가지 교수법 이외에 이해교육으로써 듣기를 중시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 최근의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언어의 4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범용 교수법으로서 듣기와 말하기를 연계하고, 듣기와 쓰기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교수학습은 결과적으로 상호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게 된다.

## 3. 듣기교육의 단계 및 인지과정

청자는 외부로부터 들리는 소리나 인간의 음성에 대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언어학자 소쉬르에 의하면 외부의 청각적인 자극은 인간의 두뇌에서 영상개념으로 바뀌며, 이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듣기의 단계적 요소는 '사전 지식, 자극에 대한 반응, 지각, 인지, 고등 사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듣기교육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위의 열거한 듣기의 단계적 요소를 다시 요약하면 '듣기 전 준비단계, 듣기 단계, 들은 후 인지과정'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각각의 단계 및 인지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듣기 전 준비단계

주어진 사전 지식 및 정보를 이용하여 스키마(schema)[4]를 활용한 학습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활용 가능한 자료, 전체적인 학습 내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음 단계인 듣기활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즉, 들려 줄 내용에 대한 간단한 배경지식, 관련된 읽을 거리, 그림을 미리 보여주거나 내용에 대한 안내질문과 대답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준비활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한재영 외2005:192참조)

1) 듣게 될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준다.
2) 듣게 될 내용과 관련된 읽을 거리를 준다.
3) 들을 내용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한다.
4) 해당 주제나 상황에 대해 토의한다.
5) 안내 질문을 주어 대답을 생각하게 한다.
6) 듣기 활동을 위한 지시를 분명히 한다.
7) 듣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 3.2 듣기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단계로 듣기교육의 핵심이다. 심리적으로는 지각의 영역에 속하며 소리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한 듣기활동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학습활동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 학습자가 집중해서 들으면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활동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

내용에 맞는 그림을 배열, 완성, 그리기를 하거나 표나 차트를 완성하기, 내용의 목록표 만들기, 참/거짓 문제, 괄호 채우기, 오류 찾기, 특정 정보 찾기 등의 활동으로 듣기 활동을 하는 동안 집중과 정확하게 듣는 습관, 지속적인 흥미를 갖도록 도와준다. 이런 활동은 3.3의 듣기 후 인지과정과도 중복될 수 있으나 듣기는 지속적인 반복교육이기에 강사는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

듣기단계에서는 사전지식을 요하는 활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즉, 듣기 자체에 집중해야 하며, 이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흥미를 잃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3.3 듣기 후 인지과정

듣기단계를 거친후 인지과정을 하나의 선(line)으로 인식하고 나열해 보면, 참여(Attend)→ 심상 구축(Form images) → 배경 지식 활용(Search past store of ideas) → 비교(Compare) → 검증(Test) → 확인(Recode) → 의미 구축(Getting meaning) → 언어적 이해(literal comprehension)의 단계를 거친다. 결국 듣기의 인지는 궁극적으로 언어적 이해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 이해로만 끝난다면 아쉬움이 남으며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는 들은 내용에 대해 주제를 더욱 심화하거나 다른 상황에 전이시켜 활용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표나 차트 완성하기, 순서 매기기, 문장의 인과관계 짝 맞추기, 요약하기, 역할극 해보기, 문장조각을 이어서 들은 것을 이야기로 만들기 등의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듣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들은 내용의 결과가 드러나는 다양한 활동과 과제를 부과해야 한다.

한편, 성공적인 인지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청자의 입장인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서 이정선(2003:21)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1) 자기 수준에 맞는 쉬운 것부터 시작
2) 소음과 구별하여 필요한 언어만을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능력
3) 음소와 어휘를 식별하는 능력
4)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하고 의미 파악에 활용하는 능력
5) 문장의 의미를 구별하는 능력
6) 문맥에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7) 문법지식을 활용하여 자구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 4. 수준별 한국어의 듣기교육

한국어의 능력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수준[5] 으로 나누어 듣기교육의 실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1 초급수준의 듣기교육

이 단계에서는 음소, 음운, 단일어 수준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모의 발음을 익히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음소 각각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야만 한다.

수업 초기에는 한국어의 자모음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먼저 기본모음을 익히되 반드시 모음 사각도를 제시하고, 각 음소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음 사각도는 인간의 구강구조를 도식화 한 것으로 학습자가 사각도를 머리속에 떠올리면서 발음하고, 듣는다면 훨씬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특히 언어권별 듣기와 발음이 매우 중요한데, 일본인 학습자는 '오/우, 에/애'의 발음과 듣기능력이 부족하다.(물론 네이티브인 한국인도 '에/애'는 쉽게 구별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기본 모음인 단모음을 익힌 후 이중모음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자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제시한 것처럼 초출자 'ㄱ, ㄴ, ㅁ, ㅅ, ㅇ' 을 제시하고 가획을 하면서 재출자의 모양을 가르친다. 나아가 상관속에 의한 자음의 구분을 확실하게 익히도록 한다. 즉, 'ㄱ-ㅋ-ㄲ, ㄷ-ㅌ-ㄸ, ㅂ-ㅍ-ㅃ, ㅅ-ㅆ, ㅈ-ㅊ-ㅉ'에 단모음을 결합하여 발음해 보고 들어보기를 반복하되, 발음위치와 발음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일본인 화자에 있어서는 거센소리와 된소리 발음이 잘 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반복연습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직적교수법을 사용하여 일본어에서 같은 발음을 갖는 음소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도 학습자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다.

한재영 외(2005:207)에서는 초급 학습자가 음을 어떻게 식별하는가에 대해서 카드를 활용한 지도법을 제시하였다. 이 학습법은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정확한 음가를 알게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6]

초급수준의 클래스에서 듣기연습에 관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음을 듣고 선택하기(음소 및 음절 식별)

우이/오이　　아우/아으　　요이유어/여이유오
비/피　　코피/커피

사라자다/다지라자/사라지다/자다리자
노메하자/노래하다/고내하다/고래히자

가까카/카가까/까카가
부푸뿌/푸부뿌/뿌푸부

달/탈/딸

위의 예는 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의 성음법에 의해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인식시켜야 하며, 각각의 음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능력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겠다.

2)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음절 및 단어의 구분)

강이 멀어요. / 감이 멀어요.
가치가 있어요. / 까치가 있어요.
고리가 길어요. / 꼬리가 길어요.
한 장 주세요. / 한 잔 주세요.
장남도 잘 쳐요. / 장난도 잘 쳐요.
이 차는 절로 가요. / 이 자는 절로 가요.
감감해요. / 캄캄해요. / 깜깜해요.
달이 예뻐요. / 딸이 예뻐요. / 탈이 예뻐요.
불이 나요. / 풀이 나요. / 뿔이 나요.

위의 예문은 음절 및 단어의 듣기교육에 중점을 둔 것으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구분과 받침 'ㄴ, ㅁ, ㅇ'의 식별 능력을 중시한 것이다. 문장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으며 강사의 발음에 따라 학습자는 잘 듣고 정확한 것을 선택하되, 여러 번 반복을 통하여 각각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한다.

3) 언어적 유희를 통한 듣기 교육

<동문은 도망가고 서문은 서있고 남문은 남아있고 북문은 부서지고>
<까치가 거지 보고 까악까악 오리가 우리 보고 꽤액꽤액>
<저기 저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동공장장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그림은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위의 예문은 듣기와 읽기를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강사는 예문의 의미는 무시해도 좋으며, 학습자가 정확히 읽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한다. 읽는 속도를 조절하여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맞추어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위의 1), 2), 3)을 실시할 때 강사는 발음하는 자신의 입모양을 학습자에게 보여주거나, 녹음을 들려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학습자는 개별적, 그룹별, 전체에 의한 듣기학습이 가능하다.

초급단계라고 하여 속도면에서 지나치게 느리게 하는 것은 실제 담화상황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보통속도에서 말하고 듣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특정 단어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한다.

## 4.2 중급、상급수준의 듣기교육

초급을 마친 학습자가 다음 단계의 중급, 상급의 수준에서는 어휘, 문장, 이야기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 즉, 가장 높은 수준의 듣기교육은 담화와 문맥의 단위, 나아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듣기와 연계하여 말하기, 읽기, 쓰기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단어 듣고 구별하기

초급단계와 연계하여 중급, 상급수준의 단어듣기에는 음운규칙에 대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연음화(읽어요/일거요/, 먹어요/머거요/), 자음동화(국물/궁물/, 독립/동닙/, 백로/뱅노/, 전라도/절라도/, 칼날/칼랄/), 구개음화(해돋이/해도지/, 미닫이/미다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굳히다/구치다/), 음운의 축약과 탈락(입학/이팍/, 축하/추카/, 꽃 한 송이/꼬탄 송이/, 보아/봐/, 그리어/그려/), 경음화(김밥/김빱/, 식당/식땅/, 갈증/갈쯩/) 등의 음운변동에 대해서 발음과 듣기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되,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학습의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문장듣기(안내방송, 뉴스, 일기예보, 광고듣기)

<다음 내리실 역은 동대문 운동장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당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분후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전 열 시 삼십분이며 날씨는 구름이 약간 끼고 흐린 편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구요?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신다구요? ○○○을 써 보세요. 한 달만 사용해 보시면 당신의 몸매가 확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예문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습자에게 2, 3회 반복해서 들려 주고 전체내용 파악하기, 빈 칸 채우기 등의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학습자 혼자서 듣기에 많은 분량이거나 어려운 내용일 경우에는 3, 4명의 그룹활동을 실시해도 좋다.

3) 대화듣기

초급이나 중급수준의 학습자에게 대화를 들려주고 상황에 맞는 번호를 고르는 듣기훈련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아래 대화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인가?(우체국, 은행, 레스토랑, 교실)

A ;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B ; 콜라 한 잔하고, 아이스크림 둘 주세요.

A ;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아래 대화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인가?(우체국, 은행, 레스토랑, 교실)
A ;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B ; 이 소포 서울에 보내려고 하는데 며칠 걸려요?
A ; 빠른 우편으로 보내면 4일 걸립니다.

4) 듣기, 인지하기, 받아쓰기

듣고 쓰는 연습은 정확한 발음을 계속 듣게 되므로 음의 식별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초기 단계의 듣기는 외국어를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게 된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인지능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받아쓰기 수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받아쓰기 활동은 청자가 들은 음소의 식별, 음운의 변동, 단어의 결합, 어형, 문법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문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듣고 받아쓰는 일련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궁극적으로는 말하기로의 전이 현상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학습활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다음은 무엇입니까?(김치)
한국사람, 일본사람도 좋아해요.
먹을 수 있어요.
빨간 색이에요.
맵지만 맛있어요.

- 다음은 누구입니까?(세종대왕)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의 경복궁에 살았어요.
조선시대 4번째 왕이에요.
훈민정음(한국어)을 만드신 분이에요.

강사는 학습자에게 단계별로 키 워드가 담긴 문장을 들려주되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듣기와 인지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도록 한다. 정답을 맞춘 후에는 각 단계의 문장을 다시한번 들려 주면서 받아쓰기를 실시한다면 학습자는 듣기, 쓰기활동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5) 중급, 상급수준 듣기의 수행 활동

중급, 상급수준의 듣기의 수행활동(주로 담화 듣기)은 학습자의 관심도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잘 살펴서 전개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 듣기교육의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수행활동이다.

- 담화 내용에 맞는 그림이 어느 것인지 구별
- 담화를 듣고 찾아가야 하는 건물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독도법)
- 담화 내용을 듣고 전체 그림에 해당 위치 그리기
- 담화 내용을 듣고 사건의 진행 또는 발생 순서대로 그림을 배열
- 짝이 되는 내용을 선으로 연결
- 담화를 듣고 시간표 짜기/스케쥴 완성
- 담화의 중요한 핵심어를 듣고 빈칸에 쓰기
- 담화의 중심 생각, 중심 내용 등을 알아보기
- 주장이나 논제가 있는 대화, 뉴스 등을 듣고 주어진 담화의 주제에 맞는 제목 쓰기
- 담화 장소, 시간 등 담화 장면을 파악, 화자의 발화 태도 추측
- 들은 내용 요약
-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후의 사건이나 변화를 추측
- 담화의 한 부분을 듣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 결과 등을 추론[7)]
- 서로 다른 정보를 듣고 의견 종합
- 담화를 듣고 논평, 의견 피력[8)]

위와 같은 수행활동을 통해 듣기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구체적인 청취목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목적에 필요한 내용을 전체내용에서 선택적으로 듣게 된다. 이들 학습자는 추가로 제공되는 잉여 청취정보에 의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듣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당황하지도 않는다.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취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분 또는 전체, 형태 또는 의미, 지엽적 내용, 전체주제에 집중하여 듣게 된다. (이상혁2003:20참조)

## 5. 듣기교육을 위한 시청각 기자재

보고 듣는 시청각 자료를 통한 학습은 간접경험과 직접적인 현실이 공존하는 학습의 장이다. 일반적으로 듣기교육에 있어서 시청각 자료의 가치[9)]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인 듣기단계는 듣기(listen) → 내재화(internalize) → 명확히 표현하기(formulate) → 적용,확장(adapt, expand) 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너무 성급히 학습자의 반응을 재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듣기 자료는 피교육자의 수준에 맞고 반드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익숙해 있는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듣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듣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시청각 기자재인데, 녹음기, CD플레이어, 캠코더,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전, CALL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등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듣기교육의 기자재로서는 녹음기와 CD플레이어이다. 이것은 청각매체를 통한 녹음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녹음기는 자료를 쉽게 제작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으며, 반복 재생, 휴대, 보관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녹음기와 CD플레이어는 다양하고 정확한 표현과 발음을 듣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자재이지만, 강사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강사는 교실 언어나 일

상생활의 지시어들을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소리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등 눈에 보이는 다른 요소들로 이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녹음기와 CD 플레이어 보다는 강사가 훨씬 더 효과적인 매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청각 기자재와 강사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캠코더 및 비디오 카메라는 학습자 자신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것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다. 촬영된 영상 및 음성을 확인하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각정보의 효율성을 묵음(silent sound)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음성이나 대화 없이 동영상만을 보여주면 화자의 제스츄어, 분위기 등으로 전체내용을 추측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됨으로 듣기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프로, 일기예보, 버라이어티, 드라마 등을 녹화 및 편집을 통해 학습자료로 재가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DMB 방송의 출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CALL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을 포함한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 기자재가 강의실에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각 및 청각에 의한 교육과 학습자 개별적 능력에 따라 학습자 맞춤식 수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 6. 결언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선행연구에 해당하는 듣기교육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듣기교육과 직접관련이 있는 직접교수법, 청각구두식 교수법, 전신반응 교수법의 각각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에 있어서 이해교육의 중심인 듣기교육을 중시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장에서는 듣기교육의 단계와 인지과정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크게 듣기 전 준비단계, 듣기 단계, 들은 후 인지과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각 단계별 듣기의 요소로서는 사전 지식, 자극에 대한 반응, 지각, 고등사고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됨을 확인하였다.

4 장에서는 능력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에 해당하는 듣기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초급수준에서는 자음, 모음의 음가를 정확히 인식한 후 음소, 음절 및 단어를 듣고 식별하는, 초보단계의 듣기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구분과 언어적 유희를 통한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중급 및 상급 수준의 단계에서는 초급단계와 연계하여 음운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음운규칙은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표음문자의 특징인 자연적인 발화와 습관에 익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또한 실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 광고, 뉴스, 일기예보 등의 문장듣기와 대화듣기를 통해 듣기교육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듣기 및 받아쓰기, 강의실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행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5 장에서는 듣기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기자재를 소개하였다. 듣기교육의 대표적 기자재는 녹

음기와 CD플레이어이다. 이것은자료를 쉽게 제작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으며, 반복 재생, 휴대, 보관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또한, 캠코더 및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전, CALL 등을 활용하여 듣기교육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언어권별 듣기교육, 교수학습의 모형, 듣기의 평가 등 듣기교육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도있는 연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주>

1) 이해과정에서 상향적인 처리과정을 거치는 활동은 소리, 단어, 억양, 문법구조 등 구어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을 식별하고,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문장을 듣고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구두연습과 문답연습을 한다. 그리고 간단한 문장에서 점차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확대해 간다. 발음, 억양, 어휘, 문법에 초점을 둔 문장 단위의 듣기활동은 대부분 상향적인 듣기활동이다.

   하향식 처리과정을 거치는 활동은 청자의 사전지식과 일반적인 기대감으로부터 출발하여 텍스트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간다. 하향적인 듣기활동은 담화 차원의 자료로 구성된다. 이러한 활동은 기본적인 듣기 목적을 이해에 두고 있다.(김선정 외 2005:203-204참조)

2) 듣기교육을 강조하는 5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명균 외(2006:123) 참조

   a. 귀로 청취하는 이해(recognition)
   b. 모델 발음의 모방(imitation)
   c. 발음 및 문형의 반복연습(repetition)
   d. 문장의 일부를 변화시키는 연습(variation)
   e.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을 하는 연습(selection)

3) '밈멤 연습'(mim-mem practice)은 '모방과 기억'을 중시하는 학습법으로 학습해야 할 기본적인 문법항목을 강사의 발음에 따라 모방하고, 반복 연습하면서 주어진 기본문을 암기하는 것이다.

   '문형연습'(pattern practice)에는 '반복, 어형변화, 대치, 환언, 완성, 전위, 확대, 단축, 변형, 통합, 응답, 재구성' 등이 있다.

4) 스키마 이론이란 제 2언어와 외국어 교육의 연구를 주도하는 중요한 이해이론이다. 이것은 인지 심리학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은 인지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상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의 틀을 통해 이해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읽기에서 출발한 스키마 이론은 듣기를 포함하는 이해영역에서 배경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학습자의 어학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각종 평가에 의한 방법과 학습 이수시간에 의한 방법이 있다.

6) 학습자들에게 자음은 파란색 카드로, 모음은 노란색 카드로 만든 자모음 카드를 1장씩 나누어 준다. 강사가'고'라고 발음하면 학습자는 잘 듣고 'ㄱ' 자를 갖고 있는 학생과 'ㅗ' 자를 갖고 있는 학생이 짝을 이루면서 음절 '고' 를 완성시키는 일종의 게임 형식의 학습방법이다.

7) 예를 들어 다음 담화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 ; 여보세요? 금광학교인데요.

   B ; 미안하지만 영어과에 김철수 선생님 계신가요?

   a. 지금 수업중이신데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b. 아니오, 국어과에 김영수입니다.
   c. 예, 영어과에 김학수입니다.

8) 가장 상급수준의 듣기교육으로 네이티브에 가까운 어학실력을 요구한다. 읽기교육과 병행한다면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을 활용하면 좋다.

9) 이정선(2003:25)은 시청각 자료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a. 직접경험을 제공한다.
b. 복잡한 교육과정을 단순하게 해서 제공한다.
c. 지리적으로 먼 곳이나 사건을 인격화하고 과거의 현상을 현실화 한다.
d. 시간을 효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자료로는 지도, 도표, 그래프, 실물, 표본, 회화, 모형, 사진, 슬라이드, 영화, 레코드, 라디오, 연극, 텔레비전 등이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고명균 외(2005),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고명균 외(2006),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김상민 외(2002), 『한국어 듣기』, 국제교육진흥원
김선정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김성인(2005), 원어민 교사에 의한 영어청해수업이 대학생들의 정의적 요인과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노명완 외(1997), '97 말하기 듣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화 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박경현(1980), 듣기 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논문집 1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박영목 외(1996),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서현석(2005), 『말하기, 듣기 수업과정 연구』, 박이정
이상현(2003),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경원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정선(2003), 효율적인 말하기 듣기 수업, 경원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해영 외(1997), TASK를 기초로 한 한국어 듣기 교육, 교육한글 제10호, 한글학회
이해영(1999), 한국어 듣기 교육의 원리와 수업 구성, 한국어교육 제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전은주(1999), 『말하기 듣기 교육론』, 박이정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조명한 외(2003), 『언어심리학』, 학지사
채희선(2005), 동사를 활용한 듣기훈련 방안 연구, 국민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최길시(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최재진(2004), 교육기기를 활용한 듣기 말하기 교육 연구, 충남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Anderson, A. and T. Lynch (1991), Liste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uman, David (1991),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Prentice Hall Ins.
Omaggio, A. C. (1993), Teaching in Context, Boston: Heinle & Heinle Inc.
Rost, Michael (1990), Listening in Language Learning, Longman.
Underwood, M. (1989), Teaching Listening, London: Longman.
Ur, Penny (1992),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University Press.